

광주시,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과정 투명하게 공개

이달내 협업 태스크포스 구성 난개발·친수공간 훼손 방지 사업자 선정 과정 불공정 해소

광주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 개발과 관련해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방식으로 난개발을 막아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달 내에 평동 준공업지역 협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대규모 아파트 조성을 위한 난개발, 황룡강변 친수공간 훼손,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 등 우려를 해소하도록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특히 공고문에 예시로 포함된 택지개

발 규모 등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예시에 불과하며 추후 오해가 없도록 삭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평동 준공업지역은 1998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난개발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으로, 광주시는 이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50억원의 50.1%를 광주

도시공사와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출자하지만 사업비 대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게 된다. 지난 20일 마감한 사업 의향서 접수에서 건설(10개), 금융투자(2개), 부동산 등 기타(5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시는 17개 업체가 사업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내년 1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달 내에 관련 실국 협업 TF를 조기 구성해 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 부문의 창의성, 자금력, 첨단 기술력을

활용하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생겼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사업계획서 제출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아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섬진강 수해현장 방문 23일 김현미(앞줄 오른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홍수피해를 겪은 전남 구례, 전북 남원의 섬진강 수해 현장을 방문해 임시 복구 결과 및 항구복구 계획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여행 전문가 양성 남도 맛기행 ‘남도투어랩’ 교육

광주시는 “나주시, 목포시, 담양군과 함께 남도 관광을 이끌 여행 전문가를 양성하는 ‘2020 남도 투어랩’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4개 시·군이 주관하는 ‘데마 여행 10선, 남도 맛 기행 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 3일 개강해 오는 30일까지 프리미엄해설사 교육과정, 청년해설사 육성과정, 창조인력양성과정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광주·전남 관광 발전을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관광벤처) 발전 방향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설사 육성교육 ▲스마트관광콘텐츠를 활용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안 ▲뉴미디어 플랫폼, 온라인여행사(OTA)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등 변화하는 국내 관광지형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역대 최대’

인증면적 22,787ha…전국의 60%

전남도가 민선 7기 들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 내실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17년 만에 유기농이 무농약 인증면적을 앞질렀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친환경농산물 물정보시스템’ 집계 결과 도내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722ha보다 7065ha 증가한 2만2787ha로, 역대 가장 많은 면적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3만7610ha의 60.6%에 해당된다.

도내 전체 인증면적 4만4567ha 중 유기농은 2만

2787ha(51%)로, 역대 처음으로 무농약 인증면적 2만1780ha(49%)를 앞질렀다. ‘과수·채소 중심의 품목 다양화’도 올 목표표를 초과 달성했다. 과수는 올해 목표 1082ha보다 2ha가 증가한 1084ha, 채소는 1048ha보다 143ha가 증가한 1191ha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유기농 중심의 품질고급화 전략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인은 민선 7기 들어 친환경농업과에서 식량원예과를 분리,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집중하고 전국 최초로 유기농 명인 지정, 유기농 지속적불금,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등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내년 현안사업 국비 확보 ‘젠걸음’

국회·기재부 방문

경전선 고속철 등 지원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나 내년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국회 예결소와 기간이 내년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이날 민주당 김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서동용·위성곤 예결위원,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났다.

김 지사는 이들에게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에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과 함께한 자리에서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 건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등 7건의 핵심예산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흥~완도 국도 27호선 기점변경 등 3건의 정책현안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협조의 뜻을 밝혔다.



김영록(왼쪽) 전남지사는 23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나 내년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박홍근 예결위 간사 및 서동용·위성곤 예결소위원을 만나 증액심사에 대비해 ▲전남 산단 대개조 추진 지원 ▲433MHz 기반 드론 운용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 ▲유·무인기 통합 인증 시험 인프라 구축 등 19건의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국립정원문화센터 설치 ▲e-모빌리티 공적 고도화 기반구축 등 5건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 및 예산실 심의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 22건을 건의한 바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과 만나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 ▲남해안·남종권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건립 등 5건의 영호남 협력사업을 건의하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中 동북3성 공략’ 시장개척단 화상상담

전남도는 정부 ‘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중국 동북지역 신 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해 ‘2020 전라남도 2차 중국 언택트 시장개척단’ 화상상담에 나섰다.

전남도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가 함께한 이번 2차 언택트 시장개척단은 중국 지린성 장춘, 랴오닝성 선양, 산둥성 웨이하이 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대면 마케팅 활동이 어려운 도내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화상상담은 오는 23·24일 중국 선양을 시작, 25일 웨이하이, 26·27일 장춘을 대상으로 총 5일간 진행된다.

이번 화상상담에 참가한 도내 수출기업은 식품기업 14개, 화장품기업 10개, 기타 3개 기업으로 총 27개 기업이 참가 할 예정이다.

온라인 화상상담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수출기업과 중국 현지 바이어에 대한 매칭을 마쳤으며, 수출제품 정보제공 샘플을 중국 측 바이어에게 미리 발송했다.

특히 상담 후에도 참여 수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추가미팅 연결, 바이어 초청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 동북지역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 중이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화상상담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수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56	
		성경연구학과(Th.M.)	1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6	
		상담심리치료학과(D.C.S.)	7	
		코칭심리학과(D.Psy.)	7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5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12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14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15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8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입학문의 ▶ 062) 605-1115

■ 전형일정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 원서접수: 2020. 11. 17(화) ~ 25(수)
· 전 형 일: 2020. 11. 30(월) 오후 2시 30분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 원서접수: 2020. 11. 30(월) ~ 12. 9(수)
· 전 형 일: 2020. 12. 11(금)/12(토)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